

"아침 새벽에 눈을 가리운 채 송용차에 실려 끌려가 '무슨 주의자야' 라는 물음에 '민족주의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자 정신없이 고문을 가하면서 '너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야 더러운 빨갱이 새끼!' 라는 온갖 욕설과 함께 수시간 계속된 고문이 끝날 눈을 뜨니 발간 재작 저 있던 고 제가 계속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자 약 15일에서 20일간을 계속 구타만 하면서 '공산주의자' 라는 걸 인정하도록 강요 했습니다."

"23세의 나이로 이제 청춘이 끝나는 구나 하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같은 고문중에서도 소위 '롱달구이' 라는 고문이 가장 무서웠고 그로인 현재 발톱이 없어지고 허리뼈는 다 부서졌으며 아직 어깨를 잘 못 씹니다." "같은 구타, 물고문(소위 수도공사), 온갖 인격적, 정신적 모독을 당한 후에는 다음날 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병신되어 살아가느니 보다 차라리 허위를 인정하고 징역살이 몇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서는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자신이 스스로 머리로 벽에 박았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어려웠던 것은 옆방에서 끊임없이 들리던 공수들의 비소리였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수사관이 술에 취해 들어와 온 방을 돌아다니며 구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구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 처와 친구를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이 법정에서 여러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토해내는 피맺힌 말들이었습니다.

존엄하신 판사님의 정속 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속자 가족들은 사뭇 몸이 떨리는 속에 흘러내리는 눈물과 복받치는 울음을 참기 못했습니다.

한여름의 뜻하지 않은 연행 30-60일간의 불법 감금 후의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에야 우리 16명의 피의자 가족들은 뚜렷한 이유와 내용을 모른채 제한된 접견에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고, 조서를 들먹이며 우리의 가족이 빨갱이 짓을 했다는 수사관들의 외침속에 반신반의하며 사실을 알고자 애써우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것이 동정하게 밝혀지는 공판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들로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의자 1인당 4장의 방청권 발부로 방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말하는 방청증서 형식 목록을 만큼 엄청난 직원들의 공판이라면 크게 보도되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고충 삼아야 할것인데 왜 방청을 제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심리를 하는 검사님들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안에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할때에도 연성을 높여 소리를 치고 반말을 하며 눈을 치켜뜨고 공소사실의 부인에 대해 확률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진실성을 바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 책을 구입(대부분은 일반 시중서점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읽은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보고 책을 소지하거나 읽은 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이 무연한 선 후배의 만남이나 졸업축하하기, 평년회 실시하는 이석관 친구 집에 놀러간 것까지도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집회로 규정하고 전공분야 외의 공부를 한것과 혼자 책을 읽는것도 같이 모여 공부하면 그 자체가 수상하다는 식의 공소사실 또한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모든것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포함되도록 위지옥의 역력했고 조사당시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의 반대심리 중 고문 사실에 대해 진술할 때는 검사님은 눈을 감고 줄고 계셨고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용납할 수 있는 처사들이 저희가족들의 마음을 어둡게만 합니다.

몇차례의 공판을 지켜 본 저희 구속자가족들은 이제서야 사실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이 너무나 무리한 논리와 요구에 고통당했음을 ! 결국 공산주의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현실임을 ! 그렇지 않고서야 그 무서운 통닭구이와 비명, 자포자기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 또 방청권과 육박지름, 엄청나고 기막힌 공소사실은 무엇이구요 ?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미 겪은 고문으로서 육신의 불구가 되어있는 발톱이 빠져있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현재로선 앞으로 남은 재판이보다 공정했으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들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치우쳐진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질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압혀져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하며 정의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로 취급되는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의 이웃들의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책여만이 이들의 힘이되어 불의와 부정을 물리칠수 있음을 절감하며 재판이 되어지는 절차 절차와 그들의 앞날을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2. 1.

이른바 '부림사건'에 관련된 부산양심위원  
가족일동